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룯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룯기 1:1-5)

When there is famine in life (Ruth 1:1-5)

룯기는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 한 가정의 믿음으로 역전의 승리를 이룬 이야기입니다. 또한 룯기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의 스토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룯기에 나오는 두 여성, 나오미와 룯의 너무도 혹독하고 잔인한 인생과 가정, 그리고 흉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흉년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됩니다.

흉년이 임한 때는 사사시대로 사무엘, 삼손, 드보라, 기드온과 같은 쟁쟁한 영적 리더들이 있던 때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흉년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The Book of Ruth is a story about a family that experienced famine. It is about a life that was won by a come-from-behind victory through faith. It is also God's word in which we see the most dramatic reversal story written throughout the Bible. It is a story about two women, Naomi and Ruth. As they faced famine in this most bitter and cruel life, their family overcame it and finally achieved victory. When famine came in the time of the Judges, there were outstanding spiritual leaders like Samuel, Samson, and Gideon. Likewise, such a famine can come to us at any time.

1. 이스라엘을 떠나다

1절에 나와 있는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땅을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를 찬양하며 생활의 풍요로움과 환희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땅에 예기치 못한 흉년이 찾아오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이 그들의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이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스라엘의 적국인 모압 지방으로 옮겨 가서 그곳에 거류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름을 버리고 좀 더 잘살아보겠다고 찾아간 모압땅에서 나오미는 불행하게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2.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나오미는 자신이 떠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나오미로 시작해 룯으로 연결되어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며 그들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며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드라마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의 모습이 혹시 나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인생의 흉년을 허락하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다면,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맞고 있다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 신앙고백과 찬양에 걸맞는 삶을 사시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y leave Israel

'The land' in verse 1 refers to Bethlehem in Judah. Elimelech and Naomi, as the etymologies of their names suggest, had made God a great King, praised Him, and lived an abundant life with joy. However, as soon as they faced unexpected famine in the land, this family who had confessed God as their King and believed in Him with joy, left Bethlehem for Moab, a hostile country to Israel, and chose to live there. Unfortunately, as they threw away their name and moved to Moab for a better life, Naomi lost her husband and her two sons.

2. God's grace without ceasing

When Naomi heard that the Lord had come to the aid of His people, she decided to return to Israel. She was able to see the Lord again through her poverty-stricken life. Moreover, when she decided to return to God and hold onto His covenant, that was when the greatest reversal drama began.

The beginning for Naomi was when Ruth met Boaz. Through them, Boaz was the father of Obed, Obed the father of Jesse, and Jesse the father of David. Through David's bloodline, the drama of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who was to come into this world, was being written.

My beloved Christians!

Can it be that the appearance of Elimelech and his family is that of our own family? Do we deserve to live our life with the name of a Christian? The Apostle Paul warned us that we must not be believers who deny our godly power even though we might have a godly appearance.

Anyone who lives in a good environment is able to enjoy their life and obey God. However, it is when there is famine in the land, that we must show our ability. Perhaps, it is for this purpose that God has allowed hardship and adversity to come our way, the famine of our life.

If we fall into the hardships of life, if we are living in the famine of life, then we need to come back to the cross of Jesus Christ. By living a life that is worthy of the name of a believer, and a life that is fitting for our confession of faith,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experience God's grace and miracle in your daily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0년 총 지출액의 62% 대외 지출

- 2011년 1월2일 공동의회 시 보고 -

올해 재정집행에서도 우리교회는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지난 1월2일(주) 공동의회 시 보고된 2010년도 결산 보고에 의하면 1년 동안 총 지출액의 62%를 전도비, 선교비, 구제비, 비전 2020운동, 아가페타운(호산나장애인학교), 농어촌100교회운동 연합사업 지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교회가 설립 초부터 전체 현금액의 60% 이상

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성숙한 교회상을 지향한 것으로, 이와 같은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순종적인 신앙과 신행일치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길 기도한다.

2011 비전 2020 후원자의 밤 개최

1월9일(주) 오늘 찬양예배시에

서울교회 비전 2020 후원자의 밤을 오늘 오후5시 찬양예배시에 갖는다.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관학교 생도들과 전방부대의 병사들이 이 예배에 함께할 예정이다.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을 복음화하는 이 위대한 비전에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1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1월20일(월) 고등부를 시작으로 - 아가페타운

2011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는 총회 주제인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에 따

라 성경학교 · 수련회 계획을 짰으며 서울교회와 아가페타운에서 부서별 계획에 의거하여 열린다. 부서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우리가 다음세대 일꾼이에요	박진아 목사
유년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김안성 목사
초등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요	서명철 목사
중등부	1. 24 (월)~1.26 (수)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미래	박노철 목사 / 박종민 목사
고등부	1. 20 (목)~1.22 (토)	아가페타운	교회의 미래 - 다음세대 고등부	박노철 목사 / 노현상 목사
사랑부	2.13 (주일)	서울교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문정훈 목사
대학부	1.27 (목)~29 (토)	아가페타운	주님과 함께 가는 청년	박노철 목사 / 유문건 목사
청년1부	2.28 (월)~3.1 (화)	아가페타운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박노철 목사 / 장석남 목사 / 구희숙 목사
청년2부	2.25 (금)~26 (토)	아가페타운	새로운 기쁨으로 거듭나자	박노철 목사 / 황광 목사
디아스포라	1.28 (금)~29 (토)	아가페타운	다음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디아스포라	박노철 목사 / 김성호 목사 / 박광일 목사
에버다	2.26 (토)	서울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박노철 목사 /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2 (토)	아가페타운	성숙한 가정을 위한 신혼가정의 과제	박노철 목사 / 한상은 목사
영어예배부	1.28 (금)~29 (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사랑	조슈아 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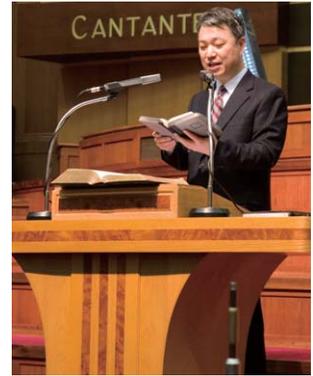
2011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1월18일(화) / 수여식: 2월6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김대호 장로)는 2011년 1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오늘부터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 · 직원 · 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 특기자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특기자는 6개월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 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1월18일(화)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1청지기 수련회



박노철 목사는 지난 주간 실시된 청지기 수련회에서 누가복음 5장 1-11절 말씀을 여섯 번에 걸쳐 설교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 운집한 수 만명의 회중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베드로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가운데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박 목사는 2011년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어떤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며 예수님께 대한 즉각적인 순종, 세상의 성공을 뒤로 할 수 있는 우선권 선정, 예수님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올해 잘 달려가자고 했다.

새해 첫 주 뜨거워진 금요기도회



1월 첫주 연합다락방으로 모인 금요기도회

금주의 성구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 12:10-11)

Haven't you read this scriptur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Mark 12:10-11)

나의하남

아름다운 맺음, 무언의 교훈



▶ 지난 1월 6일(목) 중앙일보 26면~27면에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그의 인터뷰기사가 실렸다.

1월 6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이종윤 목사님에 관한 기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은퇴 후에도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로 떠나는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피를 토하며 날은 자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안겨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행보였지만 한국교회는 아니 세상도 이 목사님의 깨끗한 마무리, 아름다운 맺음을 통해 무언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목사님을 향한 아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목사님 또한 20년간 키운 자식을 두고 홀

목사님의 은퇴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간 이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늘 자신을 불탄 포도병쿨에 비유했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서 다시 목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며 그러나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회개를 외치고, 죽음을 준비시켰고, 소망의 줄을 잡으라고 했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헌신하시고 눈물로 주를 섬기며 땀범벅이 되어 하나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기쁨진 꼴을 먹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11년, 우리는 이 목사님의 선포하신 복음을 따라 함께 일어나 영적 부흥을 이루도록 해야겠습니다.

허숙 권사(편집부)

2011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김광성 장로 (교육위원장)

성경은 밝히 말한다. 자식은 여호와와 상급이라고. 그러나 한국은 예외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와 그중에서 또 대치동은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들은 자식들에게 목숨까지 건다. 맹모삼천지교가 유행인 대치동에 살고 있기에 집값, 전세값을 무시한다.

각종정보를 총집결하여 쪽집게 과외를 마다 않는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위상이 최고로 올라가서 그 분이 되고 모든 학부형은 그분을 모시고 산다. 주일날도 학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양보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분이 대학만 들어가면 무관심이고 나몰라이다. 사실 대학생활이 한국처럼 문제되는 나라가 없다. 인격, 학문, 교양 모든 것에 부족하다. 취업을 위한 면접에서 합격자 고르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이제는 교육의 눈을 교회로 돌려야 한다. 교회가 책임지기로 선언하고 공포해야 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하는 것에 미흡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신앙적인 인격훈련과 교육을 위한 투자와 관심을 쏟아야 할때다.

서울교회는 2011년을 그렇게 하기로 선언하고 나선다. 다음세대는 이어가는 일꾼 키우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없음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대치동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사는 그분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서울교회를 밀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한다.



오정수 장로 (기획위원장)

진리만을 위해 달려온 세월이 어느덧 20년, 앞만 보며 달려온 시간들입니다.

201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감격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처소만 있다면 오두막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올립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하여 발을 기경하여 돌을 고르고 최고로 좋은 복음의 씨를 뿌리며 수고의 땀과 헌신의 눈물로 푸르른 싹을 틔우시고 1세대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이종윤 목사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바톤을 받고 막 달리기 시작한 박 목사님, 기획위원회는 성도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박 목사님을 돕고 섬기며 올 한 해 목사님이 계획하는 일들이 흡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의 서울교회 목표처럼 함께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피차에 돌아보고 나누고 함께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부서와 기관들이 균형있게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느새 우리의 안식처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아가페 타운이 점점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목표인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마무리하기 까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수리로 태어난 서울교회, 하늘 높이 힘차게 오르는 서울교회가 이제는 그 날개 아래 조국과 교회와 민족을 품고 2011년 더 높이 비상하겠습니다.

순결서약식을 마치고

인생의 행동을 잡아주옵소서

김상준 성도 (청년부)

지난 12월 마지막 날의 순결서약교육을 시작으로, 2011년의 첫 번째 주일에 순결서약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서약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의 음란물은 넘쳐나고 있고, 성에 관련된 끊임 없는 문제들이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음란물과 술, 도박 등의 독소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끊임 없이 공격합니다. 이러한 독소는 '중독성'과 '내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하며 학교와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무너뜨립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삶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따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행동을 잡아주옵소서."



청지기 수련회를 마치고

2011년에는 베드로처럼



김은태집사 (바울선교회장)

57년생- 61년생들이 선교와 봉사의 모임인 바울선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연령대입니다. 내적으로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충전하고, 그 힘으로 주변과 이웃을 향해 돕는 손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기적 사랑이 넘치고 남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배려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어찌하든 본받기를 애쓰며,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선 회원들의 열렬한 기도의 불 지피기 운동을 실시하여 기도시간 더 갖기, 중보기도 더하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 이메일 ON-LINE을 설치하여 기도제목을 수시로 공유하며, 응답받는 기쁨을 교제의 주요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또 70인 전도대와 긴밀히 연합하여 신입회원을 지체 없이 방문 교제함으로 머뭇거리기 없이 열린 교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와 심방이 긴밀하고도 조화롭게 연결되는 모델 선교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다른 세상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서로에게 늘 반복하여 증거하며 역경에서 승리하는 권면을 들려주며 지금 어려



박혜정집사 (고등부 교사)

청지기수련회 셋째날, 박노철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에 새해 벽두부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활의 터전이요 선교의 장인 직장에서, 두 딸을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얼마나 많은 교만과 아집을 부리며 살았는지요? 부끄럽게도 기도의 입술로만 순종을 외쳤

을 뿐.....
주님께서는 올 해도 부족한 저를 고등부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침보다 배움이 더 많고 아이들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직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갈 다음세대인 고등부 학생들을 더욱 더 사랑하고 섬기며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해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모란 성도 (할렐루야 찬양대원)

하나님께서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저에게 매년 새해 첫 날의 기도는 더 아름답고 감사와 기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위한 기도보다는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을 원하는 기도가 더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에게 올 해 맞이하게 된 청지기 수련회는 찬양대를 섬기는 일꾼으로써의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대원은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질문하며 교회문을 나서기보다는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노현상 목사님의 말씀이 크게 외달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려서부터 찬양대를 봉사해왔지

만 음악적 소양 외에 신앙적으로나 마음가짐에 있어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얼마나 성실히 준비하고 찬양에 임했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저 음악적 아름다움이나 타성에 빠진 찬양을 드린 것만 같아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바른 의미를 다시 깨닫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이 마음 속에 간직한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서의 비전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부흥과 크게는 서울교회 모든 찬양대의 부흥과 나아가서 서울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찬양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권성순성도의 찬양으로 드린다. 권성순 성도는 연세대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후 독일 뮌헨음대 대학원 최고연주자 과정(박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수만 국제 콩쿨에 입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대, 수원대, 강남대, 상명대에서 강의하며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W.B.Bradbury)' 외 2곡을 김양안(할렐루야찬양대 피아니스트)성도의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 ### 동정
- 이갑진장로는 1월11일-22일 미얀마, 라오스 기독교인 제자훈련 강사로 캄보디아 이재물 선교사와 선교 출장여행
 - 이사 : 김태기 장로 윤문자 권사 김오른 집사 이주연 성도 김하은 김주는 김하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장항2동 코오롱레이크폴리스2A동 301호
 - 이사 : 12교구 이현석 성도,나소정 집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69, 흥덕지구 7단지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702동 401호
 - 개업 : 2교구 한현숙 권사(곽종철 집사) '서울피아노음악클래스' & '미국대학유학원' 압구정동 미성상가 3층 010-5013-8933
 - 주간식당봉사: 제2스테반회(1.9) 제1권사회(1.16)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흠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8시30분	
새 벽 기도 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